

파견기간	2019년 1학기	교 환 학 생 귀국 보고서	소 속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파견국가	독일		성 명	김형록
파견대학	TUM(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작성일	2019. 07. 31

I. 개요

1.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12학번인 필자는 졸업이 이미 늦어질 대로 늦어졌었다. 이미 두 학기 휴학을 했었고,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바로 졸업이 불가능 해 한학기를 더 들어야 하는 것을 감수하고서도 교환학생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장 큰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 번째로는 본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기위해서였다. 사회로 나가야할 시기에, 정확히 무엇을 하고싶은 지 몰랐다. 심지어 본인에 대한 이해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기르고 싶었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새로운 환경에 나를 던져보고 그 속에서 많은 생각을하고 또 고생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두번째로는 글로벌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였다. 필자는 해외에서 수학해본 경험이 없고 여행도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에서 온 학생들과 다양한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교환학생은 전문과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학생 신분으로 해외에서 살아본다는 것은 지금 아니면 못할 것이고, 언제 이렇게 정신놓고 맘편히 해외에서 살아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더니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2. 파견 지역/대학 선정 이유

기계과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이 유럽 국가들중 1순위였다. 더군다나 제2외국어를 할 수 없는 필자에게, 독일은 일반인들도 영어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실력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력이 있었다. 특히 뮌헨은 독일 내에서도 유명한 도시이고 공대의 학교 수준도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TUM으로 교환학생을 신청하여 왔다.

3. 파견 지역/대학 소개

파견 간 학교인 TUM(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소위 뮌헨 공대는 독일 남부에 위치하며 부유하다고 잘 알려진 바이에른 주에 소속된 뮌헨 시에 있는 대학교이다. 독일 내 공과대학 연합인 TU9에 속해 있으며, 독일을 대표하는 대학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2017년까지 총 17명의 노벨상 수상자 외에도 루돌프 디젤, 발터 마이스너 등 유명 과학자 및 공학자들을 배출한 학교이다.

뮌헨 공대는 크게 세 군데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뮌헨 시내의 Theresienstraße 역 근처에 있는 메인 캠퍼스에는 전기·컴퓨터·건축·환경 공학 및 교육관련 과가 있다. 근교인

Garching지역에 위치한 캠퍼스에는 수학, 물리, 화학, 정보, 기계공학과가 있으며 가장 멀리 떨어진 Freising 캠퍼스에는 생명과학 관련 학과가 있다.

4. 파견 대학 교환 프로그램 담당자, 담당부서 이름 및 연락처
Dörte PtassekTel.: +49 (89) 289 - 25017ptassek@mytum.de

Lucia CelinkovicTel.: +49 (89) 289 - 28198lucia.celinkovic@tum.de

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비자의 경우 한국에서 받는 경우도 있고 독일에 가서 받을 수도 있다. 한국에서 미리 받으려면 슈페어 콘토가 필요하고 비용은 약 10만원 정도이며 발급까지 4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뮌헨에서 발급받는 경우에는 테어민을 잡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서류만 준비가 잘 돼 있다면 당일에도 비자도장을 여권에 찍어주신다. 필자는 뮌헨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독일은 쉥겐조약국으로 90일 이내에만 비자를 받으면 된다. 긴 것 같지만 생각보다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일찍 받아 놓는 것을 추천한다. 뮌헨에서 비자(거주허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준비물들이 필요하며 관공서인 KVR(Ruppertstraße 19, 80337 München, 독일) 2G(한국기준 3층)에서 발급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하다.

1. 비자 신청서(인터넷에서 받아서 미리 작성할 수 있고 KVR에 직접 가서 서식에 작성할 수도 있다)
2. 여권 및 여권사진 1장 (규격이 우리와 다르지만, 통과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맞는 것으로 준비하는것이 맘편하다)
3. 입학허가서(Immatrikulationsbescheinigung) - 학교 사이트(tumonline.de)에서 출력
4. 보험 증명서(Versicherungsbescheinigung) -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음
5. 재정증명서 - 필자는 슈페어 콘토를 이용했으므로 계좌 개설 시 받은 서류들을 제출함
6. 수수료 (60유로 근방)

위의 서류들을 제출하러 가기전에 해야할 것이 바로 테어민(termin)이라는 예약을 잡는 것이다. 사이트(munchen.de)에서 혹은 직접 월,수 오전에 방문하여 예약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교환 장학금 지원 시기 및 방법

필자는 국제협력본부에서 지원하여 합격했지만, 뮌헨 공대가 우리 공과대학 협정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공과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고 공대 교환학생 담당자님께 (필자 지원당시 김희선 조교님) 전화 및 메일을 드렸고, 알아서 협정교 처리를 거친 후 장학금을 지급해 주셨다.

3. 숙소 지원 방법

한국에서 파견 가는 학생들은 큰 일이 없는 한, 모두가 기숙사에 거주할 수 있다. 뮌헨

내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기숙사는 월 250~350유로 선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사설이나 따로 방을 구한다면 500유로 이상, 평균 6~800유로를 내는 것 같으니 최대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일에 답장하는 것이다. 여름학기 파견 기준, 작년에는 12월 8일에 첫 기숙사 제안 메일이 왔다. 먼저 대답하는 사람 순서대로 기숙사가 정해지는 것 같고, 일찍 방을 빼고 싶으면 특히 빠르게 답장해야 한다. (독일은 여름학기가 4.1부터 9.30이다. 한국에서 2학기를 하고자 한다면 계약 날짜보다 일찍 들어와야 하는데, 그럼 일단 기숙사에 돈을 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귀찮으면 일찍 답장을 해서 계약종료 날짜를 당길 수 있다.)

다음으로 해야할 일은 다음 메일을 기다리는 것이다. 필자 기준 다음 메일은 3.7에 왔는데 기숙사 입주 동의 서류였고 내용을 채워서 보내면 입주 안내를 해준다. 이후에 직접 뮌헨에 도착하여 안내받은 대로 기숙사 입주를 진행하면 된다.

4. 국외수학허가 신청 절차

국외수학허가는 학교 홈페이지 my.snu.ac.kr 대외교류 탭에서 가능하며 교환학생 OT에서 자세한 사항을 들을 수 있다. 공지받은 대로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다.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일 확인을 잘 하는 것이다. 기숙사 제안이나 입주 관련, 여러가지 행사 참여 및 귀국 준비에 대한 필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메일로 보내주기 때문에 수시로 확인하고 또 스팸메일함도 혹시나 잘 체크해 보길 바란다. 필자는 출국준비를 할 때 x-patrio라는 곳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중인데, TK공보험, N26 체크계좌, 슈페어콘토를 개설할 수 있었으며 교환학생을 위한 정보 및 절차들을 알 수 있었다.

뮌헨으로 교환학생을 오게되면 공보험이 필수이다. 주로 AOK나 TK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x-patrio를 통해서 TK에 가입하는 것이 간편하고 또 무료로 국제학생증도 준다고 하여 그곳에서 가입했다.

N26 체크카드는 인터넷 전용 은행으로 최근 한창 뜨고 있다. 무엇보다 다른 은행보다 계좌 개설이 간편하여 이를 이용했다. 필자는 이 계좌를 만들고 한국에서 카카오 뱅크를 이용하여 송금 후 다시 슈페어 콘토로 보냈다. 매달 5회 수수료 없이 인출가능하지만 현금 입금은 불가능하다. 슈페어 콘토 혹은 한국 계좌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았다.

슈페어 콘토는 생계 가능성을 증명하여 비자를 받기 위해 필요한 블록식 계좌로 돈을 넣어 놓고 매달 돌려받는 형식이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것이 필수는 아니었다. 다른 교환학생들은 지로콘토(일반계좌)를 이용해서도 재정증명을 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비자를 받았다. 큰 돈이 묶여있고, 매달 입금되기를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금전관리를 잘 못하는 필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것도 또한 x-patrio를 통하여 개설했다.

III.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뮌헨공대의 수강신청은 우리와는 사뭇 달랐다. 일단 수강신청 시작 날짜는 있는데 끝나는 날짜가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 자리나서 넣어도 되고 등록해지도 가능하다. Tumonline이라는 학생 메인 사이트에서 수강신청을 하게 되는 데 강의와 시험 두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우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었다. 강의를 신청하지 않아도 시험을 신청후 학점을 받을 수도 있고 강의를 들었지만 시험신청을 못해서 학점을 못받을 수도 있다. 시험 신청 기간이 있으며 심지어 과목마다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한다. 여름학기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많은 강의들의 시험신청기간이었다. 강의 신청에 크게 얽매이지 않아서 동일 시간대에 겹치게 수강신청할 수도 있다. 필자도 학기 초엔 의욕이 앞서서 11과목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해 놓으면 우리의 etl과 같은 사이트인 moodle.de에서 자료들 접근 권한이 생긴다. 수강신청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교수님께 메일드리면 편하게 넣어주시지만 언어수업등 인기강의는 쉽지 않다. 신청 절차 자체는 매우 쉽다. 선착순이기는 한데 크게 뻑뻑하지는 않은듯 하며 과목 선택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신청되는 형태이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이번 여름학기에 들었던 수업은 총 세 가지로 영어, 비선형 동역학, 매트랩 및 시뮬레이션이다.

영어수업의 경우에는 수강신청 전에 테스트를 거쳐서 점수에 맞는 레벨을 선택하게 된다.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다른 수업들과는 달리 출석체크를 하고 일정 퍼센트 이상 출석해야 한다. 우리학교처럼 강의 로드는 교수님마다 많이 다르며, 시키는 것들도 많이 다르다.

비선형 동역학은 선형 시스템에 대해 먼저 배우고 비선형 시스템을 다루는 방법을 주로 그래프를 이용하여 배운다. 일반적인 강의로 피피티와 판서를 이용하며 시험은 대부분의 독일 강의들처럼 기말고사 한 번이었고 오럴 테스트를 거쳤다. 각 단원별로 문제번호를 적은 종이 총 여섯장을 뽑아서 설명하거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비선형 동역학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교수님이 매우 친절하셔서 질의응답도 잘 해주셨으며 로드도 많지 않아서 좋았다.

매트랩 및 시뮬레이션 수업에서는 명확히 두 소프트웨어 툴의 사용법을 배웠다. 하지만 실습 수업시간이 배정돼 있음에도 이론에 치중한 나머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한시간 반에서 두시간 내내 이론에 대해서 피피티를 죽 읽어주기 때문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아직 기말고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손코딩을 하는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만 받고 혼자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추천한다.

교환학생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추천한 꿀 대형 강의들을 못들어봤던 것이 아쉽다. 언어 수업은 독일어든 영어든 신청이 뻑뻑하긴 하겠지만 듣는것을 추천한다. 친구도 사귀고 언어도 많이 늘게된다. 전공은 교수님 별로 많이 차이하지만 위에서 말한대로 출석이 없으며 신청을 넣고 빼는 것이 자유롭기 때문에 추후에 선택하면 될 듯 하다.

3. 학습 방법

학습 방법 자체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과목별로 다르겠지만 필자가 들은 두 전공 수업에서는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기 보다는 이론이 나오게된 배경, 유도과정

및 적용방법 등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영어수업의 경우에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최대한 참여를 많이 할 수록 실력향상과 학점에 도움이 된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다들 알다시피 스스로 최대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노출시켜야 한다. 독일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어학 코스를 듣거나 언어교환인 tandem 안내가 오면 빠르게 신청하는게 좋다. 학교에서 오티 기간에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party animal)과 학기 중에 열리는 여러가지 프로그램들(Tumi 주관) 참가하면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고 영어를 쓸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자기가 그런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인사이더가 아니고 서야 프로그램들 덕을 봐야 그나마 영어 쓸 기회가 생긴다. 먼저 다가갔을 때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살갑게 대해주기 때문에 대화를 하려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열심히 대화를 시도하면 된다.

5.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뮌헨공대의 수업들은 위에 말했듯이 언어 또는 특정 과목이 아닌 경우에 출석체크를 하지 않고 수강 신청에 제약이 별로 없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다.

필자의 경우에도 겹치는 수업이어도 일단 관심있는 강좌들을 전부 신청해서 자료들을 받을 수 있었고, 여러 수업을 학기 초반에 편히 들어보면서 강의를 선택할 수도 있었다. 또한 학생들이나 교수분들이 생각보다 뻣뻣하지 않아서 이것저것 부탁하고 물어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도 된다.

IV. 생활

1. 가져가야 할 물품

대부분의 물품들은 독일 내에서 살 수 있다. 아마존이나 이케아를 많이들 이용하며 한인 및 중국인 마트에서 비싸지만 우리식품들을 살 수 있다. 카레가루나 컵밥류들을 많이 가져오며 욕실화나 실내화 등이 유용했다. 전기도 220V를 사용하므로 굳이 어댑터가 필요하진 않다. 짐을 무리해서 많이 늘이지 않아도 된다.

2. 현지 물가 수준

독일 자체의 물가는 대체로 한국보다 높다. 뮌헨도 대도시고 잘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독일 내 다른 도시들 못지않게 물가가 비싸다. 외식을 하려면 한 끼에 10~15유로는 기본으로 깨진다. 그래서 케밥이 소울 푸드가 된 교환학생들이 많다. 택시는 탈 게 못되며 그나마 우버가 싼 편이지만 기본요금이 6~8유로 사이이다. 처음 입국했을 때, 짐이 많았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택시를 타고 갔더니 100.3유로를 냈다. 기차나 지하철, 트램 기본요금도 2.9유로일 정도로 교통비가 비싸다. (전동킥보드는 10분에 1.9유로이다.) 의류나 전자기기 등 대부분의 제품들은 한국과 같거나 더 비싸다.

이렇게 비싼 도시에서 유일하게 한국보다 싼 것이 있다면 바로 식료품이다. 야채나 고기들이 엄청 싸서 많은 사람들이 외식 보다는 요리나 간단한 조리를 해서 많이 먹는다. 삼겹살이나 목살 등은 100g당 1유로 내외로 먹을 수 있다. 소고기나 닭고기 등도 한국보다는

싼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자.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위에서 말했듯이, 외식비는 많이 비싸다. 요리만 먹어도 비싼데 기껏 독일까지 왔으니 생맥주까지 마셔야지라고 생각하면 한끼에 15~20유로 딱딱이다. 초반 한 두 번은 학센이나 소세지를 사먹지만, 갈수록 요리해 먹거나 피치못하게 외식해야 한다면 케밥을 먹는다. 마트에서 식료품은 한국보다 많이 싸고 날개 혹은 무게 단위로도 살 수 있어서 해먹기가 좋다. 한국친구들이든 외국인들이든 많이 사귀어서 해먹으면 완벽하다.

뮌헨에서 의료 서비스는 비싼만큼, 공보험에 의해 대부분 보장받는다. 하지만 불편한 점은 예약이 거의 필수라는 점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가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엔 MRI도 보험 보장 범위 내여서 무료로 찍었다. 스케일링도 무료이므로 시간내서 받으면 좋을 것 같다. 일반 병원들은 주로 전문의가 진료하는 개인병원이고 hospital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으로 응급상황에 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정형외과를 가고 싶다면, 구글 지도에 Orthopädie라고 쳐서 예약을 잡고 가면 된다.

은행의 경우, 필자는 위에 밝혔듯이 N26 일반 입출금식 계좌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개설하여 사용했으며 슈페어 콘토에서 매달 720유로를 받았다. N26 계좌는 유지비가 없고 매달 5회 EU국 내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그 외로 독일 내에서는 Spakasse나 Deutsche bank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슈페어 콘토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저런 은행을 통해서 재정증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뮌헨 내의 교통비는 엄청나다. 중심부부터 여러 존으로 나누어 바깥으로 갈수록 더 비싸진다. 관광지나 대부분의 생활지역은 inner존 안에 있기 때문에 편도 2.9유로지만 TUM 가칭 캠퍼스만해도 outer존이라 5유로 정도로 금액이 더 비싸진다. 심지어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편도 11유로를 넘어가는 요금을 내야한다. 교환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학생증을 받음과 동시에 Semester ticket을 산다. 대부분의 교통권 기계에서 살 수 있고 금액은 195.70유로이다. 학기 내내 MVG 전 구간에서 이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공항까지도 무료) 학생증을 꼭 지참해야한다. 잃어버릴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을 잘 챙겨놔야한다.

뮌헨 외부로의 교통편은 공항과 철도를 탈 수 있는 중앙역(Hauptbahnhof) 중앙 버스 정류장(ZOB, Hackerbrücke)을 이용하면 된다. 뮌헨 공항에는 저가항공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자주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기차도 생각보다 많이 비싸니 버스를 자주 타게 된다. 유럽은 대부분 미리 예약할수록 요금이 저렴해지므로 일찍 계획하는 것이 좋다.

독일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통신사는 Aldi talk, O2 크게 두 가지였다. 그 다음으로 보다폰 혹은 여타 심이었는데, 필자는 기숙사 인터넷 문제로 Aldi와 O2 둘 다 이용해 봤는데, Aldi는 처음에 개통할 때 굳이 방문하지 않고 매장에서 stater pack을 산 뒤 와이파이 환경에서 화상통화로 개통했고 O2는 직접 대리점에 가서 이런저런 계약서를 쓰고 가입했다. 가격은 Aldi talk이 제일 저렴하고 데이터 리필 제도가 있었다. O2는 중간에 무료 100GB 행사를 해서 갈아탔었다. 인터넷 속도 및 커버리지는 둘 다 비슷했고, 전부 일반 매장에서 요금카드를 사서 앱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한국에 비하면 건물

안, 지하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모든 곳이 다 느리기 때문에 답답함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버스나 기차 여행시 와이파이가 없다면, 도시간 지역에서 3G가 아닌 E를 자주볼 수 있다. 기숙사에서는 공유기를 사서 와이파이를 터뜨려 사용하면 된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자세히는 모르지만 걸으로 봤을 때, 학교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 돼 있는것 같지는 않다. 학술관련 동아리는 캠퍼스 내에 공고가 종종 붙긴 한다. 그 외 여가활동을 위한 동아리는 별로 못봤지만 운동이나 춤, 노래 관련한 단발적인 행사들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았다. 유럽으로 교환학생을 하러 오는 대부분은 여행에 대한 로망을 갖고 올 것이다. 필자도 교환학생 기간(3.5~8.15)중 거의 90일정도 여행을 다녔다.

수업은 여행을 위해 화수목 주 3일만 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리미리 여행계획(최소한 비행기나 교통편이라도 끊어야 가게 된다. 생각보다 한학기 금방가서 나중에 아쉬워하지 않으려면 최대한 바빠 다녀야 한다)을 짜야 경비를 아낄 수 있다. 유럽여행을 이렇게 많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인생의 몇안되는 기회이니 꼭 잡자.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외국에 나와서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 뮌헨에서 특히 안전에 대해 유의해야 할 것은 딱히 없다. 부유하고 교육수준도 높은 대도시이며 밤거리도 상당히 밝다. 엄청 외진 곳만 아니면 크게 치안 관련해서 문제생긴 경우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이 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누가봐도 위험할 것 같은 거리만 피한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6. 기타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여행용 앱은 주로 omio를 썼으며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 특정 국가들에서는 getbybus앱을 이용했다.

마트는 크게 Rewe, Aldi, Edeka등을 이용했는데 Aldi는 제일 저렴하지만 질이 좋지 않아서 생필품류 등은 거기서 사고 식재료는 다른 두 군대를 이용했다.

한식을 위한 재료를 사려고 구글 검색을 하면 한인마트는 한 군데, 아시아 마트는 여러군데가 나오는데, 한인마트는 작아서 품목에 제한이 좀 있다. 아시아마트는 주로 중앙역 앞이나 ishop을 이용했다.

머리는 남자의 경우에 한인이 운영하시는 Shinyhair를 이용했고 38유로였다.

독일에서는 빈병 수거제도인 pfant가 있다. 페트병이나 유리병에 보면 pfant라고 써져있고 바코드가 있는데 살 때 일정가격을 더 내고 나중에 마트같은데에 기계를 이용해서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유럽에서는 항상 느끼지만 할 수 있을 때 해야한다. '다음에 하지 뭐' 라는 생각을 버리고 무조건 가능할 때 모든 것들을 하는것이 몸과 정신건강에 좋다.

V.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먼저 이렇게 교환학생을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국제협력본부 및 공과대학 대외협력실 담당자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다.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잘 준비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도록 노력해 주신 덕분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고 있는 모든 분들, 아니 인생 계획에 없던 분들께도 교환학생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덕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유럽 각지로 여행 다니며, 많이 배우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 수 있었다. 인생에 다신 없을 시기,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